

月間建築情報

1980. 1. 21. ~ 2. 20.

再開發에 밀려 旧 벨기에領事館 건물 헐려

그자리엔 15층銀行, 舍堂洞에 복원

벨기에 領事館 건물이었던 史蹟 254호洋館(서울中區 舍賢洞 72의 5)이 서울시의 都市開發事業에 밀려 헐리게 되었다. 1900년대 여명기에 세워져 현재까지 남아있는 서양식 건물 7개중의 하나인 이 양관은 1903년 일본인 기사 西玉가 설계하고 일본 北陸토목회사가 2년 후에 완공, 곧바로 벨기에領事館으로 사용됐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54평의 이 고딕식 건물은 1919년 벨기에영사관이 충무로로 옮겨가자 橫濱 생명보험회사 사옥이 되었고 그후 해방때까지 海軍省에서 武官附官邸로 사용됐었다.

또 해방후에는 國有財産으로 귀속, 한때 海軍憲兵隊에서 사용해오다 1970년 현 소유주인 商業銀行에 불하돼 10년간 창고로 사용됐다.

붉은 벽돌의 이 양관은 현관과 발코니에 새겨진 무늬가 고딕식 건축양식을 돋보이게 하지만 창고로 사용되면서 우아한 옛모습을 많이 잃었다. 商業銀行은 헐린자리에 15층 사옥을 신축하고 양관은 서울 冠岳區舍堂洞 2,000여평 대지에 원형대로 복원키로 했다.

정부가 1900년대에 세워진 洋館을 보존하기 위해 사적으로 지정한 7개 건물은 다음과 같다.

△明洞聖堂 및 主教館(명동 2가 1), △旧러시아公使館(貞洞 15의 3), △貞洞教會(貞洞34), △德壽宮靜觀軒 과 石造殿, △藥峴聖堂(中林洞149), △龜山神學校 및 元曉路聖堂(원효로 4가 1)

再開發地区, 新築엔 分離式 下水施設

漢江水質保全 위해 自然·生活水별로

1월22일 서울시에 따르면, 都心再開發事業区域内 大型高層建物이나 不良住宅再開發事業区域内 聯立住宅을 건립시 自然水와 生活下水를 별도로하는 2개의 下水道 즉 分離式 下水道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서울시의 이와같은 방침은 漢江水質保全對策의 일환으로 채택돼 확대 적용되는 시책으로, 서울시는 이미 79년에 150가구이상의 아파트 건립시 分離式 下水道 설치를 의무화한 바 있고 또 금년들어 구획정리지구내 宅地정지작업시 二元化된 하수도시설을 위해 減步率을 조정키로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80년도 經濟運用計劃, 緊縮견지 - 李부총리

成長率 3~5%, 物價上昇 27~28% 등

1월22일 李漢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崔대통령의 연두순시를 맞아 80년도 經濟運用計劃을 보고 하였습니다.

다.

올해 경제 운용의 主要指標로서 ▲경제성장률 3~5%, ▲도매물가상승률 27~28%, ▲소비자물가 상승률 22~23%, ▲總通貨증가율 20%, ▲통화증가율 15%, ▲수출 170억달러, ▲수입 225억달러, ▲經濟収支赤字 47억달러, ▲貿易収支赤字 55억달러, ▲失業率 5.3% (79만 2천명)을 제시하였다.

또 경제운용의 기본방침을 ▲국민기본 생활의 안정, ▲건축기조의 유지, ▲국제수지의 방어, ▲고용 안정에 두겠다고 하였다.

서민생활안정의 세부 대책 중 건설과 관련된것을 추려 보면 ▲주택 30만호 건설, ▲투기발생시 土地去來申告制 및 許可制 실시, ▲전세기간설정 등 賃貸住宅 入住者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 ▲賃貸料 과다인상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상하수도·지하철공사 확대 등 고용기회 제고 등이 보고되었다.

또 經濟外交는 原油 확보노력 강화, 建設用役 및 産業設備輸出 확대, 資源國의 개발계획 참여 등 中東進출을 다 양화하고 東歐 등 未修交國과의 협력 모색, 아프리카 등 자 원보유국에 대한 개발수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였다.

서울 등 6大都市 12萬坪에 綜合貨物터미널

올해 25億원 들여 설치—교통부

교통부는 1월23일 올해 6개 도시에 12萬坪의 貨物綜合터미널을 설치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교통부는 貨物流通施設의 近代化를 위해 25億원의 資金을 지원, 금년내 墾地를 확보하는데로 綜合터미널을 건설토록 할 방침이다.

이미 교통부는 각 市道에 터미널建設支援資金 배정을 끝내고, 市道단위규모도 확정했는데 서울 2萬坪을 비롯 釜山 3萬坪, 仁川 1萬坪, 光州 1萬坪, 大邱 4萬坪, 馬山 1萬坪으로 되어있다.

교통부의 이같은 조치로 현재 전국에서 확보하고 있는 48개소 48,649평의 貨物터미널이 17萬坪으로 늘어나게 되어 貨物自動車의 증가와 앞으로 늘어날 物動量처리가 원활하게 된다.

大企業 都給下限線 해마다 告示

職業訓練義務基準 등도 완화방침—崔建設

1월25일, 건설협회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崔鐘浣 건설부장관은, 中小建設業체 육성을 위해 都給下限線을 建設業法施行令에 일정액을 못박기보다는 이를 탄력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건설부장관이 해마다 일정액을 고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建設業체의 직업훈련 의무기준과 건설기술자 보유기

준을 각각 완화, 건설업체부담을 덜도록 하겠으며, 政府工事代金の 物價와의 連動制는 전체를 의무화하기보다 発注庁이 이를 반영케 하겠다고 말했다.

技能工 勞賃 25% 인상을

各種工事 物價連動制를 촉구—建協 崔會長

1월25일, 건설협회 崔鐘浣회장은, 올해 건설공사규모를 政府工事 1조9천억원, 民間工事 1조3천억원 등 모두 3조2천억원 정도로 볼때 전체적인 고용수준을 늘리기는 어려워도 현재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나 정부가 말하듯이 技能工勞賃을 15% 이내에서 억제하기 어려우며 기능공은 25%, 사원급 기술자는 20%이상 올려야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換率·金利引上조치로 16%의 物價上昇要因이 발생한 까닭에 계속공사에 대한 物價連動制 조항을 적용하는 등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건설업체 기술자보유의무를 6명 정도로 완화 (현재 10명)하고, 직업훈련의무대상업체도 도급한도액 기준 30억원 (현재 10억원)으로 인상하고, 中小建設業의 육성을 위해 官民合同 建設業政策 審議會를 마련, 제도개편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業界에서도 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새住宅시스템開發, 住宅賃貸業의 企業化

高速道路 증설, 內譯入札制 등—건설부 방침

건설부는 首都圈人口를 현수준으로 계속 억제하고 地方據点都市를 인구 100만 이상으로 중점 육성하는 한편, 서울·京畿道·江原道鉄原郡 일원을 묶는 首都圈 整備計劃을 年内에 확정할 계획이다.

崔鐘浣 건설부장관은 1월28일 崔 대통령 연두 순시에 서 이같이 보고하고, 不動産投機 억제를 위해 基準 地價告示地域을 점진 확대하고 土地去來許可 및 申告制를 탄력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또 국민의 住居生活安定을 위해 값싸고 편리한 새住宅 시스템(모델 80)의 開發, 住宅賃貸業의 기업화를 꾀하고, 住宅投資를 对GNP 6%선을 견지하며 올해 民間 및 公共部門에서 총 2兆7,926億원을 들여 30萬가구의 주택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80년대 長期計劃으로 中央縱斷(大邱~安東~原州~春川)·東西橫斷 2個路線(群山~全州~居昌~永川~浦項)·西海岸縱斷(仁川~牙山灣~群山~木浦) 등 4개의 高速道路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계속사업인 光州圈綜合開發을 82년까지, 濟州 綜合開發 및 智異山·德裕山地域開發은 83년까지 完了하고, 半月新都市建設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특히 国内建設技術의 國際化를 위하여 外國業
体와의 合作 등 先進技術 導入을 촉진하고, 工業人札 制
度는 最低落札을 지양, 工事物量 및 凶面 제시에 의한 內
譯人札制를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노동청—50인 이상 고용 事業場에 食堂·寄宿舍·運動施設 등 설치의무화

1월28일 노동청은 근로자들의 복지후생시설 확충을 위
해 50인 이상 고용사업장 10,035개소에 대해 食堂·敎養·
娛樂·運動施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100
인 이상 사업장(5,246개소)에 대해서는 종업원 출퇴근에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지시했다.

또 釜山·工業団地內 事業場중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
은 寄宿舍·沐浴施設·醫務室·購販場 등을 반드시 설치
하도록 지시했다.

住宅賃貸業의 産業化 추진—건설부 심화되고 있는 住宅難 완화를 위해

1월29일 건설부에 의하면, 심화되고 있는 주택난 완화
책의 일환으로 住宅賃貸業을 산업화하고 이를 육성 하기
위해 稅制 및 金融上의 支援方案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정부는 賃貸家屋入住者 保護法
을 제정하여 소극적인 무주택자 보호방안을 강구할 방침
이었으나 전반적인 경기전망의 불투명으로, 無住宅 庶民
및 住宅建設業者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펴나가기로한데 따라 취해지는 것
이다.

全国平均 住宅普及率이 76.7%에 그치고있는 현실정을
감안할때 연간 48萬戶의 주택을 91년까지 공급해도 주택
공급율은 90.2%에 이르게 될것으로 추정되는데, 정부의
금년 주택건설계획은 30萬戶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住宅賃貸業의 産業化는 1家口 1住宅을 원칙으
로하고있는 현행 住宅政策과는 근본적으로 상치되는 정
책이기때문에 앞으로의 시책방향에 적지않은 문제점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변두리지역에 25개 市場·百貨店 신설 —서울시 7개지역은 이미 垆地 확보

1월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변두리지역의 생활 환경개
선을 위해 25개소의 市場·百貨店·수퍼마켓등을 신설하
고저 대지를 물색중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이미 江西区의 新亭洞·木洞·禾
谷洞·新月洞·江東区의 城内洞·蚕室洞·江南区의 淸潭
洞 등 7개 지역의 시장 대지를 확보하였으며, 한편 현재

일반인 시장개설희망자의 신규개설 신청을 접수하고 지
역여건에 맞으면 인가해주기로 했다.

이들 시설의 立地條件으로는 江南全域과 江北地域은 도
심반경 5km 밖이어야하며, 최소대지면적은 300평 이상
에다 駐車場시설을 위해 45평당 1대꼴의 공지를 요한다.

서울시는 이들 시설의 개설촉진을 위해 작년에 비해 3
배 가까운 10億원의 流通近代化 財政資金을 상공부에 요
청해 놓고 있다.

石油類값 59.43%, 電力料金 35.9% 대폭 인상 도매물가에 끼치는 영향 11.7%

정부는 1월29일 0시를 기해 国内 石油類 가격을 평균
59.43%(공장도 가격) 대폭 인상했다. 이와함께 電力料金
도 평균 35.9% 올려, 2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석유류가격 인상요인은 原油가격 인상분
이 29.98%, 換率調整에따른 직접요인이 24.93%라고 말
하였다.

또 이번 인상이 도매물가에 끼치는 영향은 11.7% 라고
분석했다.

독과점품목등 물가 대폭 인상 조치

시멘트 36%, 철근 16.58%, 판유리 33.9%

정부는 1. 12환율 및 金利引上 조치와 1. 29油類 및
電力料金の 인상조정에 따라 발생한 원가상승을 반영, 35
개 독과점품목 전부(2월 1일부터)와 일부 교통요금 (5
일부터)을 인상하였다. 따라서 철근 16.58%(182,582 원
→212,850원), 형강 19.1%(176,067원→209,634원), 판유
리(맑은 유리B급) 33.9%(상자당 8,375원→11,218원), 시
멘트 36.0%(1,132원→1,539원) 인상되었다.

막대한 熱損失, 빌딩 42%, 住宅 60%

斷熱材 사용, 보일러改替등 시급—熱管理協

1월31일 韓國熱管理協會가 최근, 전국의 170개 公共
建物 및 60개 一般建物을 대상으로 조사한 熱管理實態에
따르면, 公共建物은 38.8%(보일러 12.1%, 건물 26.7
%), 호텔·아파트·병원 등 일반건물은 44.4%(보일러
7.6%, 건물 36.8%)의 열손실을 나타내 열관리가 허술
한것으로 분석하고, 斷熱材사용, 廢熱回收老朽보일러 改
替 등 철저한 열관리를 실시한다면 연간 연료 소비량 약
60萬배럴에서 약25萬배럴을 절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는 또 약 550萬棟에 달하는 單獨住宅의 경우 열
손실율은 60%로 추산했는데, 열손실 경로는 外壁 26%,
窓戶 22%, 바닥 13%, 환기장치 8% 등으로 조사 됐는
데 室内溫度가 4℃ 정도로 나타났다. 단독주택도 이상
적인 열관리를 피한다면 사용연료의 50%를 절감할 수 있

다고 지적했다.

이상과 같은 열손실은 외국의 예에 비해 3배 이상 높은것이라 했다.

이밖에도 대형건물에는 室内溫度를 관리할 시설이 전혀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빌딩중 가장 열관리가 좋은것으로 꼽힌 서울 D빌딩의 경우 暖房自動制御室이 운영되고 있고, 外壁에 단열재 사용, 태양열 흡수 유리의 사용, 회전식 현관문의 사용등으로 연간소비량이 5.3ℓ/m²인데, 이것은 기타 230개 건물의 평균값 15ℓ/m²의 1/3정도라고 했다.

일부 綠地地域을 住居地域으로 건의

宅地難 解消策의 일환으로—土開公

1월31일 土地開發公社(사장 柳根昌)은 住宅價格에 있어서 宅地價格의 비중이 64%에 달하고 특히 年平均 住宅價格上昇率은 14.5%에 불과하지만 이에 비해 宅地 價格上昇率은 약 39.5%나 되어 宅地의 供給量 확대가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서울 등 大都市 주변의 宅地開發可能地는 5,500萬坪에 불과하여 86년까지 宅地需要量 1億1,000萬坪에 비해 宅地의 절대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土開公은 大都市 주변의 綠地地域 378개 지구 4,400여萬坪은 大單位 宅地開發의 適地로 지적하고 宅地難 緩和策의 하나로 이들 地域을 住居地域으로 用途變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民願業務 불편없게 法令도 과감히 改廢

申總理, 行政改革委 등에 지시

申鉉鎬국무총리는 2월 1일, 앞으로 모든 認·許可를 포함한 民願業務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민의 權利·義務에 관한 사항을 부당하게 규제하고 있는 法令등은 이를 과감하게 改廢하는 등, 對民業務 전반에 걸쳐 改善作業을 하도록 行政改革委員會를 비롯한 全 行政機關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行改委는 국민생활과 관련돼 있는 民願事務중 다수국민의 불편대상이 된 분야를 중점적으로 改善함과 아울러 경제단체 등 전국 100개 同業者 단체에도 民願事務改善에 관한 협조공헌을 발송하고, 이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建築士처벌, 73명 停業·50명 警告

무단증축·용도변경등 묵인—서울시

2월 1일, 서울시는 위법사항을 묵인한 53개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 73명에 대해 1년~1개월씩 營業停止 處分하고, 50명에 대해서는 警告處分하였다.

건축사에 대한 이같은 무더기 처벌은 건축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건설부로부터 각 시도에 이양된후, 처음으로 서울시가 처벌한것으로, 이들 위반건축사들은 건축물의 허가와 준공때 3명의 건축사가 연서하는 계도를 악용, 견제율·용적율을 위반하고, 무단용도변경, 무단 증축, 건물간의 소정거리를 확보하지않은 위법건축물을 준공해 준 건축사들이다.

처벌내용은 1년간 영업정지 2개소, 6개월 영업정지 2개소, 4개월간 9개소, 3개월간 12개소, 1개월간 28개소이다.

大企業 都給下限線 신설 등

中小業체 육성—개정建設業法 발효

2월 4일부터 발효될 개정 建設業法은 일정액 이하의 소규모 공사에 있어서 大企業체가 受注할 수 없도록 하는 都給下限線制度를 신설하고 있으며, 下都給의 경우 元都給者의 代金支払時期를 工事代金 수령일로부터 30日 이내로, 下都給代金支払時期를 法制化하는 등 中小建設業을 보호 육성키로 하고 있다.

또 建設業免許없이도 시공할 수 있는 자가공사 범위도 特殊建築物의 경우 종래의 250평에서 150평으로, 一般建築物의 경우도 350평에서 200평으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他市道로 영업소재지 이전이 가능했던 單種免許業者의 이동가능조항도 삭제, 단종 면허업자의 타시도 이전을 금지, 지역적으로 中小業체의 도급 영역을 확보해주고 있다.

서울 釜山의 区庁長에게 條例·規則制定權

大都市는 別定市로—內務部 검토중

金鐘煥 내무부장관은 2월 6일 연두순시한 崔 대통령에게 보고한 가운데, 도시행정의 합리화와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都市行政制度를 연내에 연구 개선 하겠다고 하였다.

즉 올해 大邱·仁川·光州·大田 등 인구 50만 이상의 大都市를 準直轄市 성격의 別定市(가칭)로 정해 市長權限을 대폭 강화하고, 서울시와 釜山市의 区庁長에게 予算編成權과 條例·規則의 制定·改正 등의 권한을 줄 방침이다.

내무부가 검토중인 別定市는 日本의 指定市와 비슷한 것으로 大都市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해 都市計劃 및 上下水道事業·糞尿 및 終末處理場施設 등과 같은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요원이 없거나 부족한 관할 道の 중간 관여 없이 직접 처리토록 하는 제도이다.

서울·釜山지역 煉炭使用家口 95.1%

家口당 연간 1,442.2개 사용—기획원

2월 7일 경제기획원과 동력자원부가 国会에 제출한 서울·釜山の '家口別 煉炭消費實態에 따르면

연료사용가구실태 연탄·유류 겸용

	연탄 사용	유류 사용	연탄·유류겸용
서울	95.1%	3.4%	1.5%
釜山	95.3%	2.6%	2.1%

또 난방방식별로 보면, 연탄아궁이 71.2%, 연탄 보일러 15.0%, 연탄아궁이 연탄보일러혼용 8.9%로 나타났다.

한편 動資部가 작년 11월, 서울·釜山地域의 연탄사용 28,201家口를 대상으로 標本調査를 한 결과에 의하면

평균방수와 연탄소비량(연간)

	평균 방수	연탄 소비량
서울	2.7 개	1,550.6 개
釜山	2.5 개	1,167.0 개

또 建坪규모별로 연탄사용량을 보면 △ 10평 미만 1,065.9개, △ 10~15평 1,320.3개, △ 16~20평 1,555.7개, △ 21~25평 1,855.4, △ 26~30평 1,824개, △ 31~40평 1,850개, △ 41평 이상 1,984.8개로 되어있다.

서울의 産業體·가정, 에너지낭비 연간 781億원

低質보일러, 斷熱不美, 白熱燈이 원인

2월 7일, 서울시가 조사한 서울地域의 熱損失量 및 原因別 分析結果에 따르면, 산업제조업체 및 가정용 일반건물에서 쓰는 보일러의 시설노후 등으로 낭비되는 油類는 연간 15萬 8千kl로 이를 환산하면 219億원이 된다.

또 在來式 연탄온돌의 경우 낭비되는 열량은 35%로서 이를 연탄값으로 치면 연간 423億원이 된다.

서울시는 서울地域의 연간 에너지消費量을 石油·石炭·電氣 등으로 나누어 종류별 열손실율을 추정한 결과

△ 産業用보일러의 경우, 공기비 조정, 불안전 변소, 보온불량, 조업공정개선 미비 등의 9가지 사유로 인해 熱効率が 정상기준치인 86%에서 9.6%라 떨어져 연간 86,200kl가 낭비되며

△ 가정용, 일반건물의 경우는 폐열회수불량, 시설노후 등으로 정상기준치인 84%에서 9.3%의 열손실율을 나타내, 연간 71,700kl가 낭비된다.

△ 재래식 연탄온돌의 경우, 열효율이 30%에 불과하며, 이를 표준온돌이나 온수온돌로 고치면 열효율을 60~70%로 높힐 수 있어 연간 2,395,000t의 연탄을 절약할수있다

節電實行으로 서울지역에서 절약할 수 있는 電力은 연간 3億 3千萬kw로 추산되는데, 이는 △ 100w 白熱燈을 30w 螢光燈으로 대체하면 2億320萬kw, △ 電燈의 먼지를 제대로 털지않아 손실되는 12%의 전력이 3,423萬kw, △ 1家口 1燈끄기로 하면 9,379萬kw 등으로 분류된다.

新築建物에 螢光燈설치 義務化—

商街·接客業所 白熱燈 사용을 규제기로

서울시는 2월 8일, ▲ 신축건물에 대해 螢光燈 설치를 의무화하고 ▲ 市内 商街와 食品接客業所, 劇場의 白熱燈 사용을 규제, 行政指導를 통해 螢光燈으로 바꾸도록 하고, 일반가정(160萬家口)에 대해서도 이를 권장하며 ▲ 사치성업소에 대해서는 週 1회 休日制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消費節約方案을 이날부터 시행기로 했다.

1·29조치에 따른 에너지節約策으로 마련된 이 방안은 또 ▲ 共同住宅에 熱量調節器설치를 의무화 하는 한편, ▲ 油類보일러施工義務를 없앴으며, ▲ 고층빌딩의 엘리베이터 운행간격(5층이한 금지)을 종전 2층에서 3층으로 넓혔다.

白熱燈 사용규제(設計製圖·計算業務 제외)는 일반가정의 경우 계몽활동으로, 商街와 工場등은 行政指導를 통해 추진키로 하는 한편 新築建物에 대해서는 建築法施行 規則을 고쳐 螢光燈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민학교 階段에 慘事, 개학 첫날에

부산 龜湖校에서 5명 숨지고 18명 重輕傷

국민학교 개학일인 2월11일 부산시 남구 용호국민학교에서 朝會에 참석하러 계단을 내려가던 어린이들이 넘어져 5명이 숨지고 18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참사가 일어났다.

사고는 조회 종소리를 듣고 南館 4층 20개 교실에 수용된 1,600여명 중 2~4층에 수용된 1,000여명의 어린이들이 폭 1.9m의 좁은 계단을 통해 물러나오다 2층과 1층 사이의 가파른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어린이가 넘어지고 뒤따르던 어린이가 그 위를 덮쳐 일어났다.

특히 이 교사는 비현실적인 의무교육시설때문에 4층 20개 교실의 교사에 계단을 1개소밖에 두지 못하였다고한다. 사고가 난 1층계단은 디딤면 너비 295 cm 인데, 첫단은 24.5cm로 좁은데다 단높이는 다른 단보다 4 cm나 높은 15cm로서 고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국민학교 계단에서의 사고에는 76년 3월 大邱 東川校, 75년 2월 서울 金北校에서도 특히 개학일에 있었다.

太陽熱做宅 2,200채 建設추진 — 動資部

支援資金도 110億원으로 대폭 늘려

2월11일 動資部에 따르면 太陽熱利用住宅을 당초 900채 계획을 대폭 늘려 단독주택 1,200채, 연립주택 1,000채 등 모두 2,200채를 건설키로하는 한편, 国民学校 10개교에 10개 교실씩 모두 100개 교실을 태양열이용 교실로 건설키로 했다.

이에따라 79년에는 10億원의 국민주택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용자규모를 110億원으로 대폭 늘려, 40평 이하의 태양열주택 건립희망자에게는 太陽熱施設 추가비용(평당 10만~15만원)을 덧붙여 용자키로 했다.

이와함께 앞으로 断熱材 사용 의무화 규정을 대폭 강화, 25mm인 유리섬의 두께를 50mm로 할 방침이다.

또한 太陽熱 機資材 메이커에 대해서는 産銀의 일반시설자금 300億원을 우선지원토록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医療胞弱地区에 30개병원 2,170개病床 건립 施設費 등 支援, 聯合病院 형태관장 - 보사부

2월11일, 保社部는 80년도 醫療胞弱地区 및 民間病院 建立 支援計劃을 확정 시달하였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의료취약지구 중 宜寧 50病床, 河東 80病床 외에 의료취약지구와 지방 중소도시에 28개 民間病院 2,040개病床 등 모두 30개 지역에 2,170개病床규모의 병원을 건립키로하고 이에 따른 財政支援은 病床당 건축비 1,000萬원, 장비구입비 1萬달러씩으로 각각 확정했다.

保社部는 이 계획에 의한 病院級 의료시설 설립자는 설치지역내의 여러명의 개업의사 등으로 구성되는 연합병원 형태의 醫療法人을 설치토록 하고, 綜合病院級은 대도시에 있는 민간종합병원, 사립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지방장관이 적격자로 추천하는 醫療法人의 계열병원으로 설치토록 했다.

서울市庁·教委·市警 - 江南으로 移轉 83년까지 綜合庁舍건립, 鄭市長 보고

서울시는 현재의 도시형태가 光化門을 중심으로한 單核都市機能으로 都市人口 및 交通人口의 集中과 이에 따른 혼잡으로 지금의 市庁舍에서는 市行政의 중심적 機能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 江南地域에 이전장소를 결정해 市教育委員會와 市警察局이 함께 들어설 市庁綜合庁舍를 건축하기로 했다.

2월12일 鄭相千시장은 서울시를 연두순시한 崔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가운데 市庁移轉計劃을 밝히고“곧 이전대지를 확정 올해안에 새綜合庁舍의 設計를 끝내고 총 500億원의 공사비로 81년에 착공, 83년까지 완공하며 이 대지 안에 현재 분산되어있는 市教委와 市警 청사도 건축, 함께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보고 하였다.

鄭시장은 현 청사는 철거, 이 대지 4,493坪에 都市公園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市庁移轉과 함께 서울의 都市機能再整備에 나서 통일된 首都로서의 기능에 대비하고 2,000년대를 내다보는 마스터플랜을 연내에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마스터플랜의 골자는 ▲副都市를 개발 형성하여 多核都市 형태가 되게하고 ▲職住近接되게 생활권별로 시설을 적정 배치하며 ▲電鉄網을 확장하는 한편, 도로는 현재의 都市集中 放射型에서 格字型이 되게한다는것 등이다.

鄭시장은 이 都市機能整備를 위해 79년 3월 都市基本計劃研究作業團을 구성, 基本計劃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오는 4월의 公聽會와 6월의 國際세미나를 거쳐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울시 새綜合庁舍대지 瑞草洞 3萬坪확정 3월에 移轉推進委발족 - 서울시

서울시는 2월19일 “公用의 庁舍”대지로 지적 고시(1월29일)한 서울江南區瑞草洞967 일대 3萬坪을 서울市 綜合庁舍대지로 확정했다고 밝히고, 오는 3월부터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한 市庁移轉推進委員會를 구성, 본격적인 이전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동 추진위원회는 都市計劃, 財務등 관계국장을 위원으로해서 건축계획을 세우며 새청사가 들어설 土地 補償問題, 현청사와 대지의 활용방안 등의 문제를 올해 안에 확정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새庁舍의 設計는 사용자측인 서울시가 庁舍設計의 골격을 갖춰 公聽會를 열어 학계와 건축전문가 각 대표의 자문을 거쳐 확정키로 했다.

冷煖房기준, 겨울 18℃이하, 여름 28℃이상

위반시 斷電등, 보일러代替도 추진 - 에너지節約方案

2월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소비절약에추진계획 및 “에너지소비절약 강화대책”에 따르면, 겨울철에 18℃ 이하, 여름철에 28℃ 이상의 적정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아파트에너지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관계자에 대한 관리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보일러효율을 제고시키며 창문의 2중창화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住宅에너지節約을 위해 家口別 積算熱量計의 부착을 철저히 이행시키며, 新築아파트·호텔·대형빌딩에 自動溫度 調節裝置의 부착을 의무화시키는 한편, 에너지利用合理化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冷煖房制限基準을 제정, 행정규제키로 했다.

이 대책은 이러한 표준실내온도(겨울18℃ 이하, 여름 28℃ 이상)를 어기는 경우에는 사용연료 및 電氣의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産業·纖維·化工·金屬·製紙·食品 등 大企業 806개 업체에 대한 에너지節約調査結果 전체 연료사용량(병커C유)의 76.2%

를 차지하면서도 열손실율은 21.5%에 이르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2,275億여원을 投入, 熱設備運轉管理의 合理化등을 이르도록 하며, 熱管理法에 따른 是正命令權을 발동, 에너지 낭비를 규제키로 했다.

또 10년 이상 지났거나 또는 열효율 70% 미만 노후보일러 보유업체에 대해서는 국민투자기금 40億원, 중소기업 특별자금 30億원 등 70億원을 장기저리로 융자, 보일러代替事業을 벌이도록할 방침이다.

建設技術開發의 促進方案 검토 - - 건설부

技術補償制度, 政府工事契約方式 改善도

2월13일 建設部에 의하면 그간 건설기술분야는 契約制度의 硬直性 및 技術開發에 따른 인센티브제의 결여등으로 새로운 기술개발분야가 적지않은 제약을 받아왔다고 지적,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상의 모순점을 시정하기 위해 ▲技術補償制(설계·시공기술개발)를 제도화하고, ▲工事契約上의 開發費를 法的으로 인정하는 외에, ▲터언키이(turn-Key) 發注方式을 확대하고 ▲대상기준을 보완 ▲內訳入札制度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 등을 강구키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建設部는 건설기술체제를 개편, 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技術 및 設計審査制度의 강화 및 보완방안으로 建設部內에 次官補級 機構를 신설, 이러한 업무들을 일괄해서 종합적으로 다루어 나가도록하는 職制改編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057개 교실 증설해야, 中學도 二部制격정 획기적 지원책 없으면, 학급당 70명초과

2월15일 문교부에 의하면, 금년도 국민교 졸업 87만 4천명이 내년에는 93만 4천명으로 늘고, 중학 진학율도 97%로 늘어 중학진학은 90만 6천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중학진학생 증가분 7만 4천명을 70명 학급으로 하더라도 1,057개 교실이 증설되어야 한다. 문교부는 올해 46개교(297학급)를 신설하고 기존교에 37개학급을 증설하는 등 모두 333학급을 늘렸으므로, 내년에는 이의 3배규모를 늘려야 그나마 과밀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

문교부는 경제기획원과 협의중이지만 추가수요의 절반수준인 500개학급을 신 증설하는 정도로서 낙찰될것 같다는 전망이다.

이같은 예산확보 외에 대지 확보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給水難으로 아파트建設 차질 - 서울 81년 이후 竣工조건부 新規承認

서울시는 2월15일, 금년 아파트建設事業 新規申請에 대해 준공시기로 81년 이후로 연기하는것을 조건부로 사업승인 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八堂·九宜등 8개 水源地에서 생산하고있는 日當 307萬t으로는 다량사용처인 아파트 団地에 더 이상 급수할 수 없는데다, 금년 증산키로한 20萬t은, 연말경에야 급수할 수 있기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아파트建設業체에 대해 금년 아파트建設地域과 規模를 미리 선정해 建設立地申請하라고 했는데 지역별로 급수사정에 따라 사업내용을 조정키로 했다.

서울시는 금년 水道管拡張工事が 이뤄지는 일부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와 79년에 事業承認된 9,800가구분 및 市營아파트 5,000가구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81년 1월 이후에 준공, 입주토록할 방침이다.

그러나 給水量이 적은 单独住宅이나 소규모 聯立住宅건설에 대한 규제는 없다.

都市가스工場 4개로, 82년까지 95萬家口에 공급 85년까지 빌딩·商業地区 난방도 - 서울시

서울시는 정부의 都市燃料轉換施策에 따라 오는 82년 말까지 都市가스 江西工場(江西区木洞)과 江南工場(江南区大峙洞)의 시설용량을 대폭 늘리는 외에 東部工場(城東区松亭洞)과 西部工場(恩平区鷹岩洞)을 신설, 4개 都市가스工場에서 하루 96萬m³를 생산, 82년 말부터는 서울市內 全家口의 55%인 95萬家口에 都市가스를 공급 가정연료의 주종을 이루는 연탄을 점차적으로 都市가스 또는 LP가스를 바꿔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83년 이후 85년까지 都市가스 공급시설을 계속 확대, 唐人里火電의 연료도 가스로 전환하는 등 産業用 都市가스를 공급하며, 都心地 公共機關·大型빌딩 등 商業地区의 暖房에도 현재의 油類대신 都市가스를 공급, 煤煙과 굴뚝公害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都市가스 확대공급계획은 지난번 大統領 年頭巡視때 별도로 보고된것으로 알려졌는데, 가스工場 신설 및 확장에 소요되는 工事費 670億을 民資로 充당할 방침이다.

建築副資材에 “품”자 표시 義務化 추진 자물쇠등 50品目대상 - 공업진흥청

2월16일 공업진흥청에 의하면 자물쇠등 50개 종목의 建築副資材에 대해 우수품질 표시인 “품”자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을 세웠다.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KS표시가

된 시멘트·철근 등 主要建築資材 외에 건축부자재의 품질이 나빠 수요자에게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일정한 규격과 품질규정없이 생산 규격통 판매됨으로써 통일을 기할 수 없기때문에 규격을 마련, 우수품질 생산을 권장하기 위한것이다.

이에따라 공업진흥청은 이들 품목에 대해 공산품 품질관리법을 적용, 규격과 품질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 내달 중에 이를 고시할 방침이다.

“품”자 표시를 의무화할 건축부자재는 다음과 같다.

△도어로크 5종, △도어클로우저 5종, △자물쇠 5종, △문도르레 5종, △화장실용구 5종, △정철 2종, △안전보조쇠걸이 3종, 위생용 도기 및 쇠붙이 10종, △거울받침 1종, △방수고무 1종, △세시크레싯트3종

不動產投機 강력制裁, 紹介業 許可制로
현 紹介營業法 폐지, 不動產仲介業法제정 추진

2월18일 당국에 의하면 부동산투기를 사회의 건전한 규범을 깨는 행위로 단정하고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制裁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부동산투기가 일부 악덕·부동산소개업자들의

농간에 의해 조장되고 있고 이들의 이익만을 보장해 준다는 점을 감안 현행 “紹介營業法”을 폐지하는 대신 不動產仲介業法”을 제정, 부동산중개업을 申告制에서 許可制로 전환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건설부·내무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 법안을 3~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소개업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규제사항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내무부가 성안중인 이 법안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仲介法人·介仲士·仲介人 등 3종으로하고, 仲介法人을 국가시험을 거쳐 일정자격을 취득한 仲介士를 고용 해야 한다

서울汝의도에 60층 빌딩 起工
총工事費 300여億원 投入 - 大韓生命

2월19일, 大韓生命은 총공사비 305億을 들여 서울 여의도에 國內 최대의 60층 빌딩을 세우기로하고 起工式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은 地下 3층 地上 15층의 빌딩을 세우기 위한것으로, 이는 大韓生命이 그동안 추진해온 60층빌딩을 건립하기 위한 1차 목표의 착공이 된다.